

## Survey of Music Therapy Students' Satisfaction on the Clinical Practicum Training and Supervision

Park, Hye Mi\*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117 music therapy graduate students from four schools in their second through fifth semester who have sufficient clinical training experience to form a basis for satisfactory clinical training. The result shows that the respondents reported their highest satisfaction levels with their course and curriculum (3.78), followed by supervision (3.75) and clinical training (3.65). In general, students who did not major music as undergraduates showed higher satisfaction levels. The satisfaction level of students in the earlier stages of clinical training is generally high. However, it gradually decreases as they move to more advanced stages, and increases somewhat during the internship training period. The supervisor's role was a decisive factor in reported levels of satisfaction with supervision and clinical training, and the music therapy element was a decisive factor on the course and curriculum satisfaction level. This survey is meaningful as it paves the way for the development of more satisfactory clinical training, and offers important guidelines to students in terms of the kinds of talents and characteristics they should develop.

*Keywords : Music therapy students' satisfaction, Practicum, Supervision, Clinical training*

---

\* Seoul Rehabilitation Center on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ies Voucher Music Therapist

## 음악치료 전공생들의 실습교육 및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 분석연구

박혜미\*

본 연구는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들의 효율적인 임상실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의견을 알아보하고자 4개 대학원의 음악치료학과 학생들 중 실습경험이 있는 2학기 이상 5학기 이하의 학생 1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리커트 5점 척도에서 각각의 평균이 모두 3.5를 넘었다. 대상자들은 교과목 및 교과과정 만족도(3.78)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슈퍼비전 만족도(3.75), 임상실습 만족도(3.65) 순의 만족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학부전공이 비음악인 대상이 음악 전공자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실습단계가 낮은 학생들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반면 실습단계가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턴십 과정에서는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비전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한 결과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목 및 교과과정 내용 중에서는 음악치료 요소가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교 실습 기관 학생 상호간의 효과적이고 만족스런 실습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실습 학생들이 실습과정에서 어떤 자질과 특성을 개발하고 부각시켜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지도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핵심어 : 음악치료학과 학생들의 만족도, 실습교육, 슈퍼비전, 임상실습

---

\* 서울시립 지적장애인 복지관 음악치료사 (hammiffy@naver.com)

## I. 서론

음악치료는 음악과 치료라는 다른 두 영역이 결합되어 음악과 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접 학문을 포함하는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이론과 실재를 다루고, 임상적으로는 학문적 바탕을 토대로 현장에서의 치료적 적용을 포함한다(정현주, 2005). 이와 같은 음악치료의 학문적, 임상적 특성상 음악 치료사의 교육과 훈련과정의 내용은 광범위하고 음악치료사의 역할과 역량, 전문성과 책임이 강조된다(정현주, 김동민, 2010). 이에 음악치료사는 음악치료 학문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조화롭게 적용이 되어야 하고 광범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해야 한다.

음악치료 교육과 훈련에는 특히 그에 따른 감독, 즉 슈퍼비전 (supervision)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음악치료에서 슈퍼비전은 매우 중요한데 이미 확립된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에 주요 초점이 맞추어진 인문학 분야와는 다르기 때문이다(Baird, 2007). 임상훈련에서의 슈퍼비전은 치료 세션의 전문적인 질을 통제, 유지 및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음악치료의 임상 영역 뿐 아니라 임상과 학문의 결합이 되는 음악치료의 총체적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음악치료 전공생들의 교육과 훈련에 따라, 국내의 음악치료 대학원 정규 과정에서도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음악관련, 음악치료기술, 임상기법, 특수교육 및 심리학 등의 이론과 더불어 총 5학기 과정 동안 임상실습과 인턴십 과정을 통해 전문 음악치료사를 배출한다. 그리고 임상 훈련에서는 그에 따른 슈퍼비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개념적인 지식들을 임상실습을 통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시켜 보다 풍부하고 생동감 있는 실제적인 지식으로 만들 수 있으며, 실습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식을 확인, 확립 및 재구성 한다(Wheeler, 2002). 실습 과정은 학생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지식 및 기술 습득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동시에 학습의 방향을 결정하여 이후 학습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실습 과정에서 얻은 여러 경험들과 슈퍼비전을 통하여 얻는 자아성찰과 음악기술 등은 음악치료사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전문인으로서의 자질과 태도 습득에 중요하게 기능한다(Borczon, 2004).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음악치료 분야에서는 Wheeler(2002)가 음악치료 학부 전공생들의 임상실습 동안의 경험과 고민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생들은 임상에 대한 어려움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내담자의 반응이나 슈퍼비전에 대하여 이슈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도전의식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Forinash와 Grocke (2005)는 슈퍼비전을 통해 학생 음악치료사들이 고민을 나누는 스트레스는 필요하며 슈퍼바이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 음악치료사에게 도움을 주는 제안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ruscia(1998)는 음악치료에서 주요한 것으로 '관계'를 들었다. 그는 음악치료 과정 안에는 다양한 관계들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관계 사이에서 주어지는 의미는 미묘한 느낌과 감정, 생각 사이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치료사는 내적인 감수성과 민감함을 발달시켜야 하며, 이는 슈퍼비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연구 중 강성은(2006)의 연구는 음악치료 슈퍼비전 현황과 학생음악치료사의 슈퍼비전 교육내용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였다. 슈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로 내담자의 핵심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규명하는 능력인 사례이해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알아차리기, 치료계획 및 사례관리, 치료사의 인간적, 윤리적 태도 그리고 언어 및 음악기술 순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슈퍼비전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을 서술하게 하는 부분에서 치료사 자신에 대한 이해, 내담자에 관한 이해와 치료개입, 치료사의 역할 관계 정립, 음악적인 면과 임상적인 면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면 한다는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외 슈퍼비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상 경험이 많은 슈퍼바이저와 체계적인 슈퍼바이저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음악치료 임상실습에 대한 필요성과 경험 및 요구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만족도에 대해서 다루어진 연구는 전무하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실습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음악치료 전공생들의 음악치료 임상실습 과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임상실습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Wheeler, 2002).

이에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음악치료 대학원 전공생들의 음악치료 실습교육과 슈퍼비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임상실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개선의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의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음악치료를 공부하고 있는 예비 치료사들에게 실습과정에서 겪는 치료사의 성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제공하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여러 과제들에도 적응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에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음악치료전공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실습교육 및 훈련 현황은 어떠한가?
2. 음악치료 실습교육 및 훈련 관련 만족도는 어떠한가?
  - 2-1. 음악치료 실습교육 및 훈련 관련 요소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 2-2. 음악치료전공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3. 음악치료 실습교육 및 훈련 관련 요소들과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4. 실습교육 및 훈련과정 전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서울소재 학교 가운데 전공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는 4개 대학원 A대, B대, C대, D대를 선정하여, 현재 실습중이거나 실습을 1회 이상 경험한 2학기 이상 5학기 이하의 학생들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117부(회수율 78%)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응답자별 학교 분포를 살펴보면, A대 31.6%, B대 18.8%, C대 42.7%, D대 6.9%를 차지하였다.

### 2.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 슈퍼비전 및 실습교육에 대한 석사과정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첫째, 일반적 특성 및 실습 현황 둘째, 슈퍼바이저 역할 및 슈퍼비전 내용에 대한 만족도, 셋째, 교과목 및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넷째, 임상실습 과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만족도의 네 영역으로 알아보았다. 사용하는 설문지 구성은 <표 1>과 같다.

첫 번째 영역은 성별 및 학기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 3문항과 현 실습지, 담당하고 있는 대상의 유형, 슈퍼비전의 유형, 소요시간, 형태, 집단크기, 개선영역과 실습교육의 개선영역 등 실습현황에 관한 문항 14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치료 실습교육과 슈퍼비전, 임상실습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슈퍼비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슈퍼바이저 역할 및 슈퍼비전 내용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지식제공요소, 관계요소, 기술 및 행동 평가 요소로 구성하였고(McClain, 2001), 슈퍼비전 내용을 음악기술, 임상기술,

<표 1> 설문지의 구성

	내용	문항수	Cronbach $\alpha$
A	일반적 특성 및 실습현황	17	
B	슈퍼바이저 역할 만족도	9	.87
	슈퍼비전 내용 만족도	14	.92
C	실습관련 교과목 및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	8	.83
D	임상실습 과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만족도	8	.83
Total		58	

음악치료 기술, 음악치료 정체성 및 전문성으로 구성하였다(Bernard, 1979; Lanning, 1971). 총 25문항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슈퍼바이저 역할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계수 Cronbach  $\alpha = .87$ 로 산출되었고 음악치료 대학원생의 슈퍼비전 내용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계수 Cronbach  $\alpha = .92$ 로 산출되었다.

세 번째 영역은 교과목 및 교과과정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음악치료사의 필수적 임상적인 자질인 음악 기술, 임상 기술, 음악치료 기술 요소로 구성하였다(Boxill, Bruscia, & Hesser, 1981). 총 8문항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실습관련 교과목 및 교과과정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계수 Cronbach  $\alpha = .83$ 로 산출되었다.

네 번째 영역은 임상실습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 대상자의 전문적 음악치료사 양성을 위한 현재 임상실습에 관하여 질문은 하였다. 임상실습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와 임상실습 준비 과정 및 실습 배정의 적절성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총 8문항의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임상실습 전반적인 사항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계수 Cronbach  $\alpha = .83$ 로 산출되었다.

###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연구에 사용할 질문 문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 개 대학원의 음악치료학과를 선택하여 재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측정 후 그 결과를 참조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이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시내 4개 대학교의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음악치료 임상실습을 하고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한 뒤 강의가 끝난 후 설문지를 전달하고 조사 후 바로 수거하였다.

### 4.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상관관계(Correlation)를 통해 음악치료 실습 관련 요소와 실습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실습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과 T검정을 사용하였고, 전체 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실습관련 요소들이 어떤 변인인지 분석하기 위해 단순선형회기분석(Sim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일반적 인적사항

본 연구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는 116명이었으며 성별분포는 여성이 96.6% (113명), 남성이 3.4%(4명)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연령대는 20대가 66.7%(78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9.9%(35명), 40대가 3.4%(4명)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현재 학기 분포를 살펴보면, 3학기에 있는 학생이 35.0%(41명)로 가장 많았고 2학기 33.3%(39명), 인턴 과정의 학생이 16.2%(19명), 4학기에 있는 학생이 15.3% (18명)로 나타났다(<표 2> 참고).

<표 2> 일반적 인적사항

정보	구분	N	%
성별	남자	4	3.4
	여자	113	96.6
연령	20대	78	66.7
	30대	35	29.9
	40대	4	3.4
학기	2학기	39	33.3
	3학기	41	35.0
	4학기	18	15.3
	인턴	19	16.2

##### 2) 학부전공

응답자의 학부전공을 음악 전공과 비음악 전공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음악 전공자가 50.4%(59명), 비음악 전공자가 49.6%(58명)로 조사 되었다(<표 3> 참조). 이와 같은 결과

<표 3> 학부 전공- 음악 전공과 비음악 전공

	구분	N	%
학부 전공	음악 전공	59	50.4
	비음악 전공	58	49.6
	합계	117	100

를 통해 음악치료전공 내의 음악 전공자와 비음악 전공자의 비율이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 2. 음악치료 실습교육 및 훈련 요소에 따른 만족도

### 1)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

슈퍼바이저 역할 및 슈퍼비전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각 요소별로 평균을 도출한 결과, 슈퍼바이저의 역할의 관계요소가 평균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술 및 행동평가 요소가 3.87, 지식제공요소가 3.79로 나타났다. 또한 슈퍼비전 내용에서는 음악치료 정체성 및 전문성이 평균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음악치료 기술이 3.72, 임상 기술이 3.65, 음악 기술이 3.50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 슈퍼바이저의 역할 및 슈퍼비전의 내용에 관한 모든 요소에 관한 평균점수가 약 3.5이상으로 대체로 슈퍼비전에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슈퍼비전 만족도 평균의 순위대로 문항을 정렬한 결과, 가장 평균점수가 높은 문항은 5번 문항으로 ‘나는 슈퍼바이저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 생각’의 평균값이 4.29로 나타났다. 비슷한 차이로 평균점수가 높은 문항의 ‘나를 한 인격체로 수용, 존중’으로 평균값이 4.22였다. 이 두 요소는 모두 슈퍼바이저와의 관계요소임을 보았을 때, 슈퍼비전 만족도의 높은 순위에 영향을 준 요소는 슈퍼바이저와의 관계영역임을 알 수 있다. 가장 평균점수가 낮은 문항은 11번 문항으로 ‘성악, 다양한 악기의 이해 및 연주 능력에 도움을 줌’의 평균값이 3.18로 나타났다. 그 다음 평균점수가 낮은 문항은 17번 문항 ‘음악을 치료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철학적, 생리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지식을 제공’으로 평균값이 3.32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음악적, 음악치료적인 기술의 슈퍼비전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만족도 순위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학부전공이 음악 전공인 대상자들과 비음악 전공인 대상자들의 슈퍼비전 만족도의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비음악 전공의 만족도의 평균이 음악 전공의 평균보다 높고, 음악치료 정체성 및 전문성에서만 음악 전공의 평균(3.82)이 높았지만 점수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거의 모든 요소가 요소별 평균차가 매우 적어 유의한 수준의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두 집단 모두 관계 요소에서는 비음악 전공이 4.07, 음악 전공이 3.99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음악적 기술은 비음악 전공이 3.62, 음악 전공이 3.40로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점수가 나타났다(<표 4> 참조).

슈퍼비전 만족도의 하위영역에서 학기별 만족도 평균은 <표 5>와 같다. 인턴 학기 학생들에게서 보인 높은 만족도 평균 두 요소를 제외하고는 모든 요소에서 2학기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높은 만족도 평균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요소가 4.13으로 슈



〈표 4〉 전공 구분에 의한 슈퍼비전 만족도 평균 비교

		학부전공	M	SD	p
슈퍼 바이저 역할	관계 요소	음악	3.99	.73	
		비음악	4.07	.64	
		전체평균	4.04	.69	.472
	기술 및 행동 평가 요소	음악	3.82	.63	
		비음악	3.92	.73	
		전체평균	3.87	.68	.435
	지식제공 요소	음악	3.72	.71	
		비음악	3.88	.68	
		전체평균	3.79	.70	.268
슈퍼 비전 내용	음악치료 정체성 및 전문성	음악	3.82	.60	
		비음악	3.66	.61	
		전체평균	3.75	.61	.173
	음악치료 기술	음악	3.65	.65	
		비음악	3.79	.69	
		전체평균	3.72	.67	.293
	임상 기술	음악	3.54	.67	
		비음악	3.75	.67	
		전체평균	3.65	.67	.090
음악 기술	음악	3.40	.73		
	비음악	3.62	.65		
	전체평균	3.50	.70	.133	
		합계	3.75	.52	.422

\*p < .05

퍼바이저 역할 중 관계요소였다. 3,4학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높은 만족도 역시 각각 4.05, 3.83으로 관계요소였으나, 인턴 학기에 있는 학생들은 기술 및 행동 평가 요소가 가장 높은 만족도 평균(4.05)을 보였다. 모든 학기의 학생들에게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요소는 각각 2학기 3.65, 인턴 학기 3.64, 3학기 3.43, 4학기 3.30로 음악 기술 요소로 조사되었다. 또한 모든 요소들은 4학기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학기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균이 나타났지만 요소별 학기 평균차가 매우 적어 유의한 수준의 우열을 가리기가 어

〈표 5〉 학기 구분에 의한 슈퍼비전 만족도 평균 비교

		학기	M	SD	p
슈퍼 바이저 역할	관계 요소	2	4.13	.66	
		3	4.05	.69	
		4	3.83	.67	
		인턴	3.96	.75	
		전체평균	4.04	.69	.407
	기술 및 행동 평가 요소	2	3.88	.85	
		3	3.84	.55	
		4	3.76	.59	
		인턴	4.05	.64	
		전체평균	3.87	.68	.610
	지식제공 요소	2	4.07	.67	
		3	3.66	.64	
		4	3.58	.63	
		인턴	3.76	.81	
		전체평균	3.79	.70	.016*
슈퍼비전 내용	음악치료 정체성 및 전문성	2	3.82	.69	
		3	3.77	.59	
		4	3.53	.54	
		인턴	3.74	.52	
		전체평균	3.75	.61	.356
	음악치료 기술	2	3.89	.73	
		3	3.66	.58	
		4	3.48	.72	
		인턴	3.74	.60	
		전체평균	3.72	.67	.137
	임상 기술	2	3.78	.73	
		3	3.56	.57	
		4	3.38	.68	
		인턴	3.82	.68	
		전체평균	3.65	.67	.100
음악 기술	2	3.64	.85		
	3	3.43	.60		
	4	3.30	.60		
	인턴	3.64	.60		
	전체평균	3.50	.70	.189	
		합계	3.75	.52	.114

\* $p < .05$

〈표 6〉 전공 구분에 의한 교과목 및 교과과정 만족도 평균 비교

	학부전공	M	SD	p
음악 기술	음악	3.79	.88	
	비음악	3.82	.84	
	전체평균	3.81	.86	.847
임상 기술	음악	3.81	.66	
	비음악	3.80	.76	
	전체평균	3.79	.70	.870
음악치료 기술	음악	3.75	.66	
	비음악	3.79	.66	
	전체평균	3.76	.66	.861
	합계	3.78	.63	.952

\* $p < .05$ 

럽다. 그 중 슈퍼바이저의 역할 중 지식제공 요소는 95%의 신뢰수준 하에 만족도  $p < .05$ 보다 작으므로 학기별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2) 교과목 및 교과과정 만족도

교과목 및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각 요소별로 평균을 도출한 결과, 음악 기술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 임상 기술이 3.79, 음악 치료 기술이 3.76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수강한 교과목 및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 점수가 3.75이상인 것으로 보아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대상자의 교과목 및 교과과정 만족도 평균의 순위대로 문항을 정렬한 결과, 가장 평균점수가 높은 문항은 4번 문항으로 ‘내담자의 특성(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에 대한 지식의 전수’의 평균값이 3.99로 나타났다. 비슷한 차이로 평균점수가 높은 문항은 5번문항의 ‘장애별 특성에 대해 지식 전수’로 평균값 3.97 이었다. 이 두 요소는 모두 임상 기술 요소임을 보았을 때, 교과목 및 교과과정 만족도의 높은 순위에 영향을 준 요소는 임상기술 영역임을 알 수 있다. 가장 평균점수가 낮은 문항은 임상적 기술 요소의 7번 문항으로 ‘임상 실습에서 사용되는 행동 중재 및 상담기법에 대해 다룸’의 평균값이 3.43로 나타났다. 그다음 평균점수가 낮은 문항은 1번 문항의 ‘실제 실습하는데 있어 창의적인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전수’로 평균값이 3.66 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교과목 및 교과과정에서는 임상 기술 요소 내의 부분적용에 대한 만족도 순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 전공이 음악 전공인 대상자들과 비음악 전공인 대상자들의 교과목 및 교과과정 만

족도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교과목 및 교과과정 만족도의 하위영역 음악 기술, 임상 기술, 음악치료 기술에서 음악 전공과 비음악 전공 간의 만족도 평균은 <표 6>과 같다. 세 영역 중 두 영역에서 비음악 전공의 만족도의 평균이 음악 전공의 평균보다 높지만 요소별 평균차가 매우 적어 유의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또한 임상 기술 요소는 음악 전공의 평균(3.81)이 높지만 이 또한 점수 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전공별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이는 요소는 비음악 전공은 음악 기술 요소에서 3.82, 음악 전공은 임상 기술 요소에서 3.81로 나타났다. 음악치료 기술은 비음악 전공이 3.79, 음악 전공이 3.75로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점수가 나타났다.

교과목 및 교과과정 만족도의 하위영역에서 학기별 만족도 평균은 <표 7>과 같다. 교과목 및 교과과정 만족도도 슈퍼비전 만족도와 같이 모든 요소에서 2학기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높은 만족도 평균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요소가 3.97로 음악 기술 요소였다. 3학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높은 만족도는 임상 기술로 3.86이었고, 4학기는

<표 7> 학기 구분에 의한 교과목 및 교과과정 만족도 평균 비교

	학기	M	SD	p
음악 기술	2	3.97	.87	
	3	3.80	.72	
	4	3.60	.94	
	인턴	3.70	1.04	
	전체평균	3.81	.86	.417
임상 기술	2	3.93	.71	
	3	3.86	.68	
	4	3.58	.63	
	인턴	3.62	.79	
	전체평균	3.79	.70	.226
음악치료 기술	2	3.90	.64	
	3	3.73	.66	
	4	3.55	.75	
	인턴	3.83	.55	
	전체평균	3.76	.66	.244
합계		3.78	.63	.237

\* $p < .05$

3.60로 음악기술, 인턴학기에 있는 학생들은 음악치료 기술이 3.83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모든 요소에서 4학기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학기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균이 나타났다. 2,3,4학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요소는 각각 3.90, 3.73, 3.55로 음악치료 요소였고, 인턴학기 학생은 임상적 기술이 3.58로 가장 낮은 평균으로 조사되었다.

### 3) 임상실습 전반적 사항에 대한 만족도

임상실습 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65로 평균적으로 보통 이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결과를 볼 때 전체 평균의 최소값은 2, 최대값은 5로 리커트 전체 문항 내용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임상실습 과정 만족도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 대상자의 임상실습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평균의 순위대로 문항을 정렬한 결과, 가장 평균점수가 높은 문항은 6번 문항으로 ‘행동 중재 및 상담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의 평균값이 4.09로 나타났다. 작은 차이로 평균점수가 높은 문항은 5번 문항의 ‘음악 기법이나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으로 평균값 4.05였다. 이 두 요소는 모두 임상, 음악치료 기술 요소에 속하는 것임을 보았을 때, 임상실습 전반에 임상, 음악치료 요소가 높은 순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가장 평균점수가 낮은 문항은 3번 문항으로 ‘실습 관련 준비

<표 8> 전공 구분에 의한 임상실습 과정 만족도 평균 비교

	학부전공	M	SD	p
임상실습 만족도	음악	3.56	.66	.105
	비음악	3.74	.54	
	합계	3.65	.61	

\* $p < .05$

<표 9> 학기 구분에 의한 임상실습 과정 만족도 평균 비교

	학기	M	SD	p
임상실습 만족도	2	3.68	.61	.257
	3	3.60	.68	
	4	3.50	.43	
	인턴	3.88	.58	
	합계	3.65	.61	

시간과 과제의 분량이 적절하다고 생각'의 평균값이 3.07로 나타났다. 그 다음 평균점수가 낮은 문항은 2번 '실습 가능한 기관의 유형과 수가 적절하다고 생각'으로 평균값이 3.11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임상실습 과정의 만족도에서는 음악치료, 임상 기술 부분이 아닌 외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 전공이 음악 전공인 대상자들과 비음악 전공인 대상자들의 임상실습 과정 만족도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임상실습 과정 만족도의 음악 전공과 비음악 전공 간의 만족도 평균은 <표 8>과 같다. 비음악 전공의 만족도의 평균이 3.73으로 음악 전공의 평균 3.56보다 높지만 평균차가 적어 유의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임상실습 과정 만족도에서의 학기별 만족도 평균은 <표 9>와 같다. 임상실습 과정 만족도에서는 인턴 학기에 있는 학생들이 평균 3.88로 가장 높은 만족도 평균을 나타냈다. 그다음 작은 차이로 3.68의 2학기가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다음 3학기의 3.60, 4학기의 3.5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의 슈퍼비전 만족도와 교과목 및 교과과정 만족도가 2학기가 가장 높았던 것과는 달리 인턴학기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3. 음악치료 실습교육 및 훈련관련 요소들과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음악치료 실습교육 및 슈퍼비전 관련 요소 즉, 슈퍼비전과 관련한 슈퍼바이저의 역할 및 슈퍼비전 내용 요소들과 실습교육에서 교과목 및 교과과정 요소가 실제로 임상실습 만족도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10> 참조).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5$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바이저의 역할(지식 제공요소, 관계요소, 기술행동평가요소) 및 슈퍼비전 내용(음악 기술, 임상 기술, 음악치료 기술, 음악치료 정체성 및 전문성), 그리고 과목 및 교과과정 요소(음악치료 기술, 임상 기술, 음악 기술)가 임상실습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1) 실습교육 및 슈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실습교육 및 슈퍼비전 만족도 요소 즉, 슈퍼비전에서는 슈퍼바이저의 역할과 슈퍼비전 내용 요소, 교과과정 및 교과목 요소가 실제로 실습교육 및 슈퍼비전 만족도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선형회기분석(Simple Line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 음악치료 전공생들은 슈퍼비전 만족도에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슈퍼비전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지식제공요소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 관계요소가 높았다.

<표 10> 실습교육 및 훈련관련 요소와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지식 제공	Pearson 상관계수	1										
	p											
② 관계	Pearson 상관계수	.467	1									
	p	.000*										
③ 기술및 행동평가	Pearson 상관계수	.611	.472	1								
	p	.000*	.000*									
④ 음악 기술	Pearson 상관계수	.674	.366	.660	1							
	p	.000*	.000*	.000*								
⑤ 임상 기술	Pearson 상관계수	.564	.456	.580	.638	1						
	p	.000*	.000*	.000*	.000*							
⑥ 음악 치료 기술	Pearson 상관계수	.640	.399	.590	.572	.678	1					
	p	.000*	.000*	.000*	.000*	.000*						
⑦ 음악 치료 정체성 및 전문성	Pearson 상관계수	.456	.421	.551	.472	.543	.541	1				
	p	.000*	.000*	.000*	.000*	.000*	.000*					
⑧ 음악 치료기술	Pearson 상관계수	.492	.301	.475	.441	.368	.558	.485	1			
	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⑨ 임상 기술	Pearson 상관계수	.384	.202	.405	.350	.235	.395	.321	.704	1		
	p	.000*	.029*	.000*	.000*	.011*	.000*	.000*	.000*			
⑩ 음악 기술	Pearson 상관계수	.481	.340	.415	.341	.334	.502	.420	.639	.695	1	
	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⑪ 실습 만족도	Pearson 상관계수	.352	.305	.359	.297	.310	.329	.420	.468	.360	.346	1
	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p < .05

즉 슈퍼바이저의 역할 중 지식제공요소와 관계요소는 슈퍼비전 만족도와 긍정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지식제공요소와 관계요소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슈퍼비전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 분석 내용은  $R^2=.411$ ,  $adj-R^2=.355$ 으로 약 36%의 설명력을 보인다(<표 11> 참조).

<표 11> 슈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슈퍼비전 만족도				
		<i>b</i>	표준오차	<i>Beta</i>	<i>t</i>	<i>p</i>
슈퍼바이저 역할	지식제공 요소	-.538	.128	-.497	-4.209	.000**
	관계요소	-.264	.100	-.241	-2.642	.009**
	기술 및 행동 평가 요소	-.185	.128	-.166	-1.447	.151
슈퍼비전 내용	음악 기술	.158	.129	.146	1.223	.224
	임상 기술	-.216	.133	-.191	-1.621	.108
	음악치료 기술	.174	.138	.154	1.264	.209
	음악치료 정체성 및 전문성	.006	.125	.005	.046	.963
교과목 및 교과과정	음악치료 기술	.250	.139	.218	1.797	.075
	임상 기술	-.148	.130	-.137	-1.135	.259
	음악 기술	.045	.103	.051	.436	.664
$R^2$				.411		
$adj-R^2$				.355		

\*  $p < .05$ , \*\*  $p < .001$

## 2)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임상실습 만족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소를 분석한 결과, 음악치료 교과내용 중 음악치료 기술이 가장 설명력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과목과 교과과정 중 음악치료 기술은 임상실습만족도와 긍정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음악치료 기술에 대한 평가가 높을수록 전체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아진다. 이 분석 내용은  $R^2=.286$ ,  $adj-R^2=.218$ 로 약 22%의 설명력을 보인다(<표 12> 참조).



〈표 12〉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임상실습 만족도				
		<i>b</i>	표준오차	<i>Beta</i>	<i>t</i>	<i>p</i>
슈퍼바이저 역할	지식제공 요소	.087	.129	.089	.680	.498
	관계요소	.084	.100	.085	.840	.403
	기술 및 행동 평가 요소	.050	.127	.049	.389	.698
슈퍼비전 내용	음악 기술	-.057	.130	-.058	-.439	.662
	임상 기술	.061	.135	.060	.453	.651
	음악치료 기술	-.087	.137	-.086	-.634	.527
	음악치료 정체성 및 전문성	.226	.125	.201	1.807	.074
교과목 및 교과과정	음악치료 기술	.300	.139	.289	2.160	.033*
	임상 기술	.076	.130	.078	.587	.559
	음악 기술	-.024	.103	-.030	-.230	.819
<i>R</i> <sup>2</sup>					.286	
<i>adj-R</i> <sup>2</sup>					.218	

\* *p* < .05

### 5. 임상실습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

대상자들이 임상실습에 도움이 되는 실습 교과목을 1위부터 3위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과목의 선택 빈도와 순위별 빈도를 분석하였다. 총 응답자는 117명이었고, 가장 많이 조사된 과목은 총 응답자의 58.9%(69명)로 음악치료기술 이었다. 그 뒤를

〈표 13〉 임상실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교과목 - 선택빈도

구분	<i>N</i>	%
음악치료기술	69	58.9
즉흥연주	68	58.1
음악치료 임상실습	7	5.9
음악심리치료	4	3.4
음악분석	4	3.4

이어 즉흥연주가 58.1%(68명), 음악치료 임상실습이 5.9%(7명), 음악심리치료가 3.4%(4명), 음악분석이 3.4%(4명)로 나타났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살펴보면 첫째, 실습교육 및 슈퍼비전 관련 요소에 대한 전공생들의 평가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뜻하는데 리커트 5점 척도에서 각각의 평균이 모두 3.5를 넘어 만족하는 점수를 보인다. 그중에서 교과목 및 교과과정 만족도가 가장 높게 평가 되었고 슈퍼비전, 임상실습 전반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치료 전공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음악 전공자와 비음악 전공자로 구분하여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체로 비음악 전공자가 음악 전공자 보다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학기별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는 2학기에 있는 학생이 대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학기가 높아질수록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중 4학기에 있는 학생이 대체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학기인 인턴은 정식 음악치료사가 되기 전의 과정으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세션이었던 것에서 주당 10회 이상의 세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준전문가로서 양, 질적으로 늘어난 실습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인턴을 제외하여, 학기가 높아질수록 실습교육 및 슈퍼비전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학기별로 실습교육 및 슈퍼비전 과정 제도가 맞추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과목 및 교과과정 만족도는 음악 기술, 임상 기술, 음악치료 기술 요소 순으로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는 임상기술 및 음악치료 기술은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숙련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대되는 만족도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인다. 이는 항목별로 살펴보았을 때, 내담자의 특성과 장애별 특성에 관한 지식관련 교육과정의 만족도는 높지만 임상실습에서 사용되는 행동중재 및 상담기법에 관한 교육과정은 만족도가 낮게 나온 것과도 연관이 있다. 박민경(2010)의 연구에서 상담 및 심리관련 과목 개설에 대한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한다는 조사내용과도 일치한다. 교과목 및 교과과정 요소에서 음악 전공자와 비음악 전공자를 구분하여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비음악 전공자는 음악 기술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지만 음악 전공자는 임상 기술에서 비음악 전공자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학기별로 교과목 및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2, 4학기는 음악 기술, 3학기는 임상 기술, 인턴학기는 음악치료 기술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는 첫 실습을 하기 시작한 학기와 인턴이 시작되기 이전인 2,4학기에 는 음악적인 부분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을 보이며, 3학기는 임상적인 부분에,

인턴은 학기를 마무리하며 많은 세션을 하는 학기인 만큼 음악치료기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과목 및 교과과정의 제도를 전공별, 학기별로 맞추어 역량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슈퍼비전 만족도를 슈퍼바이저의 역할과 슈퍼비전 내용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슈퍼바이저의 역할에서는 관계, 기술 및 행동평가, 지식제공 순으로 만족도가 나타났고, 슈퍼비전 내용에서는 음악치료 정체성 및 전문성, 음악치료 기술, 임상 기술, 음악 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와의 관계 및 음악치료사로서의 정체성 및 전문성이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슈퍼비전 지도내용과 슈퍼바이저와 실습생의 관계가 슈퍼비전에 영향을 준다는 류시행(1990)의 연구를 뒷받침 해준다. 전공별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슈퍼비전의 거의 모든 요소가 비음악 전공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슈퍼비전 내용 중 음악치료 정체성 및 전문성에서만 음악 전공자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또한 임상 기술에서의 음악 전공자와 비음악 전공자의 만족도 평균의 차이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학기별로 슈퍼비전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2,3,4학기는 슈퍼바이저의 역할 중 관계 요소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인턴 학기는 기술 및 행동 평가 요소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슈퍼비전 내용 중 임상적인 기술은 상대적으로 다른 학기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인턴이 세션 수가 실습생들에 비해 많아지면서 임상기술 및 행동에 대한 평가와 임상적인 기술을 인식할 기회가 높은 것과는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임상실습 전반은 다른 요소 만족도보다 낮게 평가 되었다. 전공별로 임상실습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비음악 전공자가 음악 전공자 보다 비교적 높은 평균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요소들은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낮은 평가를 보이는 요소들은 왜 그런지 살펴보아 그 요소들의 효과적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슈퍼비전 관련요소와 임상실습만족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교과목 및 교과과정 요소와 만족도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슈퍼비전 관련요소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교과목 및 교과과정 요소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상실습에 영향을 주는 슈퍼비전 관련 요소들과 교과목 및 교과과정 요소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들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임상실습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여섯째, 슈퍼비전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통해 어떤 요소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단순 선형 회귀분석을 한 결과 슈퍼비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지식제공요소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관계요소가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슈퍼바이저와 실습생이 서로 존중하고 슈퍼바이저는 실습생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며 교류해야 한다는

Forinash(2001)의 연구와 슈퍼바이저가 실습생의 실습경험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관심을 갖고, 실습생은 슈퍼바이저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여길수록 슈퍼비전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강희자(2003)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다양한 요소가 만족적인 실습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다양한 요소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음악치료 전공 대학원생의 실습교육 및 슈퍼비전 만족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 응답자의 학기 수와 학교 별 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학교마다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학기차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으면 만족도의 차이도 한쪽으로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학기 차들의 분포를 고르게 하여 만족도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학교마다의 같은 표현으로 통일된 질문을 작성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실습교육과 슈퍼비전 만족도의 변인으로 슈퍼비전(슈퍼바이저의 역할, 슈퍼비전 내용), 교과목 및 교과과정, 임상실습 전반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그 외에도 실습기관, 슈퍼바이저의 세부적인 사항(학력, 전공, 성별, 역량, 경험 및 임상수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좀 더 다양한 변수들이 분석의 변인으로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학생들의 실습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는데, 학생 뿐 아니라 실습지도자, 슈퍼바이저, 기관에도 적용하여 동시에 실습지도 및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성은 (2006). 음악치료 슈퍼비전 현황과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교육 내용 요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희자 (2003). 사회복지전공 학생의 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시향 (1990). 사회사업지도감독에 대한 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민경 (2010). 음악치료 교과과정에 대한 음악치료전공 대학원생의 인식도 조사연구. **음악치료교육연구**, 7(2), 47-63.
- 정현주 (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정현주, 김동민 (2010). **음악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Baird, B. N. (2007). *The internship, practicum, and field placement handbook*. Upper Saddle River, N. J.: Pearson/Prentice Hall.
- Bernard, J. M. (1979). Supervisory Training: A Discrimination Model.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9(1), 60-68.
- Borczon, R. M. (2004). *Music therapy: A fieldwork primer*. NH: Barcelona Publishers.
- Boxill, E. H., Bruscia, K. E., & Hesser, B. (1981). Essential competencies for the practices music therapy. *Music Therapy*, 18(1), 43-49.
- Bruscia, K. E. (1998). *Defining music therapy* (2nd ed.).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 Forinash, M. (2001). *Music Therapy Supervision*. NH: Barcelona Publishers.
- Forinash, M. & Grocke, D. (2005). The phenomenological inquiry. In B. L. Wheeler (2nd ed.), *Music therapy research* (pp. 321-334). NH: Barcelona Publishers.
- Lanning, W. (1971).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group and individual counseling supervision and three relationship measur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8(5), 401-406.
- McClain, F. J. (2001). Music therapy supervision: A view of the literature. In Forinash, M. (Ed.). *Music therapy supervision* (pp. 9-17).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 Wheeler, B. L. (2002). Music therapy practicum practices: A survey of music therapy educators. *Journal of Music Therapy*, 37(4), 286-311.

- 게재신청일: 2011. 4. 18.
- 수정투고일: 2011. 4. 27.
- 게재확정일: 2011. 5. 15.